

# 국어 영역 [B형]

##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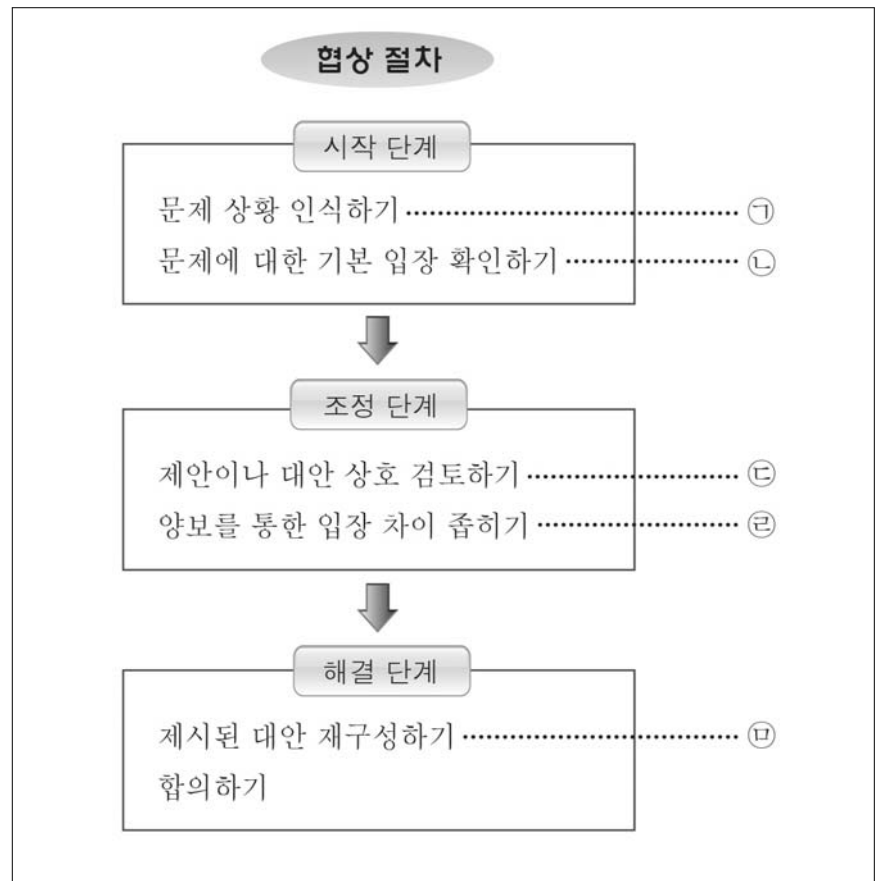
[1~2] 다음은 ○○고등학교의 체육동아리 탁구반 반장과 농구반 반장의 협상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탁구반 반장:** 애기 들었어요?  
**농구반 반장:** 예. 저도 지금 막 체육 선생님을 뵙고 오는 길인데, 다음 주부터 체육관 이용을 금요일 방과 후 2시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그동안은 우리가 목요일, 탁구반이 금요일에 사용해 왔는데..... 이제 어떡하죠? 현재로서는 학교의 결정을 바꿀 수도 없을 것 같고요.  
**탁구반 반장:** 그러게요, 그런데 저희는 체육관이 아니면 곤란해요. 그래서 애긴데, 실외 연습이 가능한 농구반이 체육관 사용을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농구반에 비해 인원도 많고, 탁구대 설치도 체육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어려우니 말예요.  
**농구반 반장:**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농구동아리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내 코트에서 연습해야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거든요.  
**탁구반 반장:**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앞 체육공원이 더 낫지 않나요?  
**농구반 반장:** 거기도 실외 코트잖아요. 게다가 지난달부터 체육공원에서 금요일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공원 사용도 어려워요.  
**탁구반 반장:** 아, 그렇군요. 그럼 체육관을 절반씩 나눠 사용하겠어요? 그게 공평할 것 같은데.....  
**농구반 반장:** 음, 그건 평소 때라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시합을 앞두고 실전처럼 연습할 때라 코트 전체를 써야 해요. 대신 1시간씩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탁구반 반장:** 1시간씩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는 개인 연습을 하며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저희가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농구반 반장:** 그렇게 하세요. 그럼 대신 탁구반이 사용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인 연습을 해도 되겠죠?  
**탁구반 반장:** 예, 그럼요. 그러면 체육관을 1시간씩 사용하되 탁구반이 먼저 쓰고, 그때 농구반은 한쪽에서 개인 연습을 하는 것으로 해요.  
**농구반 반장:** 예. 그럼 그렇게 결정하죠.

1. '탁구반 반장'이 사용한 협상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협상에 임하기 전 상대방의 경기 일정을 파악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 ⑤ 보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협상 중단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 다음의 협상 절차에 따라 위 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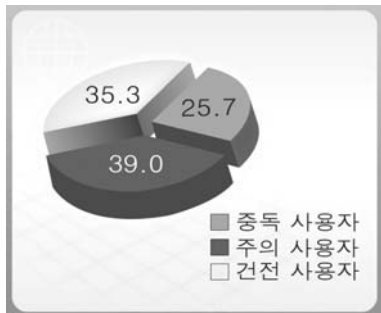
- ① ㉠: 협상 참여자들이 학교의 결정에 난감해 하는 것으로 보아 체육관 사용 제한이 문제 상황임을 알 수 있군.
- ② ㉡: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당 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임을 알 수 있군.
- ③ ㉢: 학교 앞 공원 사용, 체육관 공간 활용 및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교환에서 확인할 수 있군.
- ④ ㉣: 개인 연습이 불가능한 탁구반 활동의 특성을 농구반 반장이 수용하여 체육관 사용 순서를 정한 것에서 알 수 있군.
- ⑤ ㉤: 사용 시간 배분, 사용 순서 조정, 일부 공간 할애 등과 관련된 제안들을 정리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군.

3. 다음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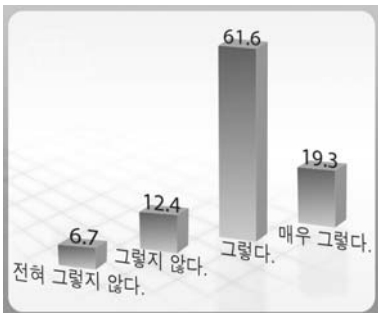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노모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노모포비아란 ‘노 모바일폰 포비아’의 준말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매우 불안해지고 정신적 공황을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청중들로부터 자유로운 대답을 들은 후)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채팅, 게임, 쇼핑, 정보 검색, 영화나 음악 감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도 많지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거나 게임에 중독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집중력마저 떨어져 학업에도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다음의 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1]



[자료 2]

[자료 1]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을, [자료 2]는 ‘스마트폰 사용 이후 성적이 저하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듯 자료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고, 스마트폰 사용 후에 학업 성적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운동이나 독서 등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1일 사용 시간 정하기나 스마트폰 없는 요일 정하기 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를 인식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을 지혜롭게 절제함으로써 보람된 학창 시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문제 상황의 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밝히고 있군.
- ② 발표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군.
- ③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군.
- ④ 질문을 던지면서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군.
- ⑤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군.

[4~5] 다음은 희서와 엄마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희서: 다녀왔습니다. 아유, 피곤해.

엄마: 어서 오렴. 배고프지? 엄마 지금 저녁 준비하는데 손이 부족하네. 누가 냉장고에서 반찬 좀 꺼내주면 좋겠네.

희서: (툭툭거리며) 엄마, 저 피곤해요. 영수 시키면 되잖아요?

엄마: ㉠ 영수는 두부 사러 갔어. 네가 통명스럽게 말하니 엄마가 서운하다. 우리 착한 딸이 오늘 기분이 별로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희서: (미안해하며) ㉡ 별일 없었어요. (가방을 열며) 근데 엄마, 선생님께서 오늘 주신 가정통신문을 꼭 부모님과 같이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여기요.....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이란 게 뭐예요?

엄마: ㉢ 함께 식사하면서 이뤄지는 가정교육을 말하는 거겠지. (가정통신문을 보며) 가족 식사의 날을 정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라는데? 우리도 가족 식사의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 가족이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볼까?

희서: ㉣ 근데 엄마, 오늘 아빠가 용돈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오늘 바쁘신가 봐요.

엄마: 응. 일이 많으신가 봐. 그렇지만 아빠도 밥상머리 교육의 취지를 아시면 가족 식사의 날에는 일찍 들어오실 거야. 우리 가족도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을 텐데, 네 생각은 어떠니?

희서: 네, 좋아요.

엄마: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 친밀한 대화를 위해 TV와 휴대폰은 잠시 끄는 게 어떨까?

희서: ㉤ 엄마가 원하시니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퇴근해서 식사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와서 도울게요. 근데 엄마, 여기 가정통신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이나 공감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칭찬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엄마: 알았다.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자. 그럼 오늘 아빠가 일찍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아빠께 전화해 보자.

4. 위 대화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양상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대화 참여자	의사소통의 양상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 말하려는 배려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①</li> <li>○ 요청이나 명령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려는 표현 방법이 나타난다. .... ②</li> <li>○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③</li> </ul>
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li> <li>○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li> </ul>

5. ㉠~㉤ 중, <보기>의 '의사소통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사소통 규칙의 하나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후 대화 상황에 맞도록 말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모듬원의 조언을 반영하여 자기 소개서를 수정하였다. ㉠~㉤ 중, 수정 후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OO대학교 자기 소개서>의 항목**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쓰시오.

수정 전
내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과제 수행 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예요. 그 능력은 어렸을 때 경험한 일에서 얻게 되었지요. 지금은 정리만큼은 내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해요.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나도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성적이어서 남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누구에게나 자신감 있게 말하는 친구들이 참 대단해 보여요.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right: 5px;">모듬원의 한 마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은 삭제해야 해.                      ㉡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추어야 해.                      ㉢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만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어.                      ㉣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내용의 진정성을 높이는 게 좋겠어.                      ㉤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자신의 장점을 연계해서 함께 서술하면 좋겠어.                 </div> </div>
↓
수정 후
저의 장점은 과제 수행 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블록 조립을 좋아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블록을 조립하고 싶었던 저는 블록들을 색깔과 모양별로 분류하고 정리해 두면 빨리 조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경험 이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습관이 생겼으며, 그 습관은 제가 공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시험을 본 후에는 틀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오답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고등학교 2년 동안 학력우수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건의문을 작성하려는 학생의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계획을 세웠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 시의 공공문화시설은 양적으로 확충되었고 주민들의 이용률도 낮지 않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부실 운영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시청의 담당 부서에 보내어 우리 시의 공공문화시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려고 해.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

### 계 획 서

주제문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자. .... ①
전략	◦ 운영 실태 및 주민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자료수집	◦ 공공문화시설 개수 및 주민들의 이용률에 대한 자료 ..... ② ◦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 및 운영 전문 인력과 관련된 통계 자료 ◦ 공공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자료 ..... ③
내용선정	◦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애호 의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설문 자료를 제시한다. .... ④ ◦ 운영 부실의 원인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미흡, 운영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을 제시한다. ◦ 운영의 개선 방안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제시한다. .... ⑤
조직	◦ 문제 제기, 원인 분석, 개선 방안 제시, 기대 효과 제시의 순서로 내용을 조직한다.

8. '다원화된 농촌 구성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통계 자료

1. 연령별 귀농 인구의 변화

연도	20-30대	40-50대	50-60대
2005	~300	~400	~200
2006	~400	~1,000	~300
2007	~500	~1,500	~400
2008	~600	~2,400	~500
2009	~700	~2,000	~400

2. 농촌 다문화 가정 인구의 변화

연도	인구 (명)
2007	53,034
2008	64,042
2009	85,198
2010	88,365

(나) 귀농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이유	비율 (%)
자연 속의 건강한 생활	63%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17%
기타	14%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지을	6%

(다) 연구 발표 자료

- 현재 귀농한 사람들은 보육 및 자녀 교육의 여건 미비, 의료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
- 농촌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언어 및 문화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문화적으로도 소외되고 있음.

- (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다문화 가정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인구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 (나)를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귀농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농촌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을 밝힌다.
- (다)를 활용하여 농촌 유입 인구를 위한 보육 및 자녀 교육, 의료 부문의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가)-2와 (다)를 활용하여 늘어나는 농촌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및 문화적 측면에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나)와 (다)를 활용하여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귀농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업기술교육센터를 확충해야 함을 제시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당나라 시인 이백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마침 한 할머니가 냇가에서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백이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었다. “바늘을 만들고 있다요.”라고 할머니가 대답하자, 이백은 깜짝 놀라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고요?”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백을 쳐다보며 “젊은이,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

오늘 작문 시간에 이백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백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주제는 쉽게 찾아냈지만, 이와 관련된 글감이 잘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다. 나의 글이 친구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공유한 소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써 온 학급 일기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다. 학급 일기에는 교내 합창대회에 관한 우리들의 글이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

교내 합창대회를 앞두고 우리 반 친구들은 좋은 ㉠ 취지를 얻기 위해서 방과 후에 합창 연습을 시작했다. ㉡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음을 정확히 내지 못해서 화음이 잘 맞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면 합창대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 선생님은 연주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던 중 여러 친구들이 학급 일기에 다시 열심히 해 보자는 글을 썼고, 이것을 읽은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보기로 했다. 성악을 공부하는 친구가 나서서 우리에게 기초적인 발성과 정확한 음정을 가르쳐 주었고, ㉣ 시간이 날 때마다 합창곡을 연습했다. 그 결과, 우리 반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 이루어 낸다.

9.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예상 독자에게 친숙한 경험을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낸다.
- 시각 자료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다양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를 분명히 드러낸다.
-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중심 생각을 하나의 어휘로 압축해 제시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은 '결과'로 대체한다.
- 앞 문장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해서 ㉡은 '그래서'로 바꾼다.
- 글의 흐름상 통일성이 떨어지므로 ㉢은 삭제한다.
- 필요한 문장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 앞에 '우리는'을 추가한다.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로 바꾼다.

11. 다음은 ‘ㅎ’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도출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자료	발음	도출한 결과
① 전화를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끈는] [안는]	⇒ ‘ㄴ’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음.
②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싫어도 해야만 한다.	[오른] [시러]	⇒ 받침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함.
③ 장미는 여기에 놓고, 이 국화는 저기에 두어라.	[노코] [구과]	⇒ 받침 ‘ㅎ’ 뒤에 ‘ㄱ’이 오든, 받침 ‘ㄱ’ 뒤에 ‘ㅎ’이 오든 두 음을 합쳐서 [크]으로 발음함.
④ 여기에 놓는 것 보다는, 저기에 쌓는 것이 좋겠다.	[논는] [싼는]	⇒ 받침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함.
⑤ 밥 한 사발, 국 한 대접 변변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바판사발] [구칸대접]	⇒ 받침 ‘ㅂ, ㄱ’ 뒤에 ‘ㅎ’이 결합되는 경우,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때는 [표, ㅋ]으로 발음함.

12. <보기>의 표준어 규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제 12 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선생님 설명:** 표준어 규정 12항은 ‘웃-’과 ‘윗-’이 그동안 심각한 혼란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윗-’으로 통일하기로 한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을 뜻하는 단어는 ‘웃목’이 아니라 ‘윗목’을 표준어로 삼지요. 그런데 ‘이 층 또는 여러 층 가운데 위에 있는 층’을 가리키는 단어는 ‘윗-’이 거센소리 앞에 있기 때문에 ‘윗층’이 아니라 ‘위층’을 표준어로 삼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어른’과 같은 경우는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을 표준어로 삼는 거예요.

- ① ‘맨 곁에 입는 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래, 위’ 대립이 없기 때문에 ‘웃웃’이 표준어가 되겠군.
- ② ‘방향을 가리키는 말’인 ‘쪽’은 된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윗-’과 결합할 때에는 ‘위쪽’이 표준어가 되겠군.
- ③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말은 명사 ‘위’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윗팔’을 표준어로 삼겠군.
- ④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아래, 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표준어가 되겠군.
- ⑤ ‘여러 채로 된 집에서 위에 있는 집채’를 나타내는 낱말은 ‘윗-’ 뒤에 거센소리가 오기 때문에 ‘위채’를 표준어로 삼겠군.

13.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문장을 고른 것은?

(가) 문법적인 오류

- 잘못된 시간 표현의 사용  
(예) 선생님께서는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 선생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 ㉠
- 이중 피동의 사용  
(예) 축구 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 축구 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

(나) 모호한 문장의 사용

- 부정문의 모호성  
(예) 학생들이 소풍 장소에 다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은 경우]  
⇒ 모든 학생들이 소풍 장소에 다 온 것은 아니다. …… ㉢
- 비교 구문의 모호성  
(예) 영화는 민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민수에 비해 영화가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경우]  
⇒ 영화는 게임하는 것보다 민수를 더 좋아한다.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다음 대화에 나타난 구어 담화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민 지:** 선생님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 드릴까요?  
**선생님:** 민지네? 도와주면 고맙지. 요즘 어떻게 지내?  
**민 지:** 잘 지내요! 그런데, 선생님 살이 좀 빠지셨네요?  
**선생님:** 요즘 운동 시작했거든. 넌 무슨 운동하는 거 있니?  
**민 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예전에는 줄넘기라도 했는데…….  
**선생님:** 왜, 요즘 많이 바쁘니?  
**민 지:** 공부하랴 축제 준비하랴 조금 바빠요, 요새.  
**선생님:** 힘내라! 참, 그런데 너 이번에 토론 대회에서 상 받았대며?  
**민 지:**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좀 긴장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늦었지만 축하해. 얘기하다보니 다 왔네, 교무실에. 민지야 고마워, 짐 들어줘서.  
**민 지:** 천만에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래, 민지야 다음에 또 보자.

- ① 화제 전환이 자주 이루어진다.
- ②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체된다.
- ③ 필수적인 문장성분이 빈번하게 생략된다.
- ④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군말이 자주 사용된다.
- ⑤ 표정과 몸짓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 6

## 국어 영역 [B형]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순화어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단어는 그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진다. 이 중 합성어는 ‘산길’, ‘뛰놀다’와 같이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이와 달리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파생어는 ‘꽃사과’와 같이 ㉡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단어와 ‘잠보’와 같이 ㉢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

〈보기 2〉

외래어를 순화한 말도 일반적인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외래어	의미	구성 요소	순화어
매치업	서로 맞서서 대결함.	‘맞-’, ‘대결’	맞대결
다크서클	눈 아랫부분이 거무스름하게 그늘이 지는 것을 가리킴.	‘눈’, ‘그늘’	눈그늘
패셔니스타	맵시 있거나 맵시를 잘 부리는 사람.	‘맵시’, ‘-꾼’	맵시꾼

- |   |     |     |     |
|---|-----|-----|-----|
|   | ㉠   | ㉡   | ㉢   |
| ① | 눈그늘 | 맞대결 | 맵시꾼 |
| ② | 눈그늘 | 맵시꾼 | 맞대결 |
| ③ | 맞대결 | 눈그늘 | 맵시꾼 |
| ④ | 맵시꾼 | 맞대결 | 눈그늘 |
| ⑤ | 맵시꾼 | 눈그늘 | 맞대결 |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된 조사의 기능에 대해 탐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孔孔子직 ㉡ 曾중子즈드려 날러 곶으샤되 ㉢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슬흔 父부母모의 받즌은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히 오디 아니홈이 ㉣ 효도의 비르소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야 일홈을 後후世세에 베퍼 써 ㉤ 父부母모를 현더케 홈이 효도의 ㅁ춤이니라.

- 『소학언해』 권2, 선조 20년(1587)

[현대어 풀이]  
공자가 중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혈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며,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 ① ㉠의 ‘ㅣ’는 현대 국어에서 ‘가’로 바뀐 것으로 보아 앞말이 행위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어.
- ② ㉡의 ‘드려’는 현대 국어에서 ‘에게’로 바뀐 것으로 보아 앞말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어.
- ③ ㉢의 ‘이며’는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쓴 것으로 보아 앞말이 뒷말과 비교하는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어.

- ④ ㉣의 ‘의’는 현대 국어에서 ‘의’로 바뀐 것으로 보아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 ⑤ ㉤의 ‘를’은 현대 국어에서 ‘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앞말이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어.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름다운 것이란 일반적으로 적절한 크기와 형식을 가질 때 성립한다.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형식을 벗어날 때 우리는 아름다움이나 조화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예술 작품 중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형식에서 벗어난 거대한 건축물이나 추상적인 작품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 작품에서 표현된 것은 색채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적인 것을 우리의 감각에 적합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작가는 내용을 암시만 하는 정도로 색채나 형태와 같은 감각적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감각적 매체는 사실상 비감각적인 것, 즉 정신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며, 그 결과 예술 작품은 감각적인 것이 주는 아름다움을 넘어 정신적 아름다움이나 종교적인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 체험에서 감각적 기쁨은 약화되지만, 다른 차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 기쁨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암시하는 바를 감상자가 정신적으로 감지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합일의 기쁨이다. 합일은 일종의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이다. 초상화를 보고 초상화의 모델이 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는 감각적 차원에서 둘 사이의 유사성을 지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단조로운 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추상회화에서 감각적 유사성을 찾기는 쉽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모호하고도 경이로운 존재의 신비를 느꼈다면, 그것은 비감각적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각함으로써 정신적 합일을 통한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다.


이렇듯 비감각적 차원에서 유사성을 느끼는 예는 추상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건축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어떠한 자연 대상도 모방하지 않고 부분들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비례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러한 관계, 또는 비례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 차원을 넘어 비감각적 차원에서 합일을 이룰 때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에 직접 호소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1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델과 초상화의 유사성은 감각적인 차원에서 지각된다.
- ② 건축물에 나타나는 비례의 아름다움은 부분들 간의 관계에서 생긴다.
- ③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벗어난 예술 작품도 있다.
- ④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작가는 색채나 형태와 같은 감각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⑤ 한두 가지 단조로운 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추상회화에서 정신적 합일을 통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8. 위 글의 글쓴이가 ‘켈른 대성당’을 보고 <보기>와 같이 평가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켈른 대성당은 비례를 통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이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고딕 양식의 오래된 건축물을 보며 종교적인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 \_\_\_\_\_

<켈른 대성당>

- ① 모호함이나 신비로움이 배제되고 실용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 ② 건축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③ 감각적 차원을 넘어 비감각적 차원에서 합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 ④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모방했기 때문이다
- ⑤ 여백과 곡선의 미학을 잘 살려 감상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노장 사상이라고 하여 장자를 노자의 계승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 도(道)와 ㉡ 개체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장자는 노자와 차이를 보인다.

노자에게 있어서 도는 세상의 모든 개체들 간의 관계 원리이며, 이는 모든 개체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릇은 그 자체로서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이미 그릇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그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폐기해 버릴 것이다. 즉, 그릇은 다른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는 ‘다른 것과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원리이며 개체인 그릇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자는 관계의 원리인 도를 개체인 그릇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장자의 생각은 이러한 노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그는 관계의 원리가 구체적인 개체들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부정했다.

장자에게 있어 관계 원리인 도는 개체들에 선행해서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활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도(道)’를 원래의 뜻 그대로 ‘길’이라고 사유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깊은 산에 나 있는 등산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구불구불한 산길은 분명 우리와 무관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자는 바로 그 길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비로소 등산로가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 ‘도’는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관계에 의한 흔적인 것이다.

이처럼 장자는 노자를 계승했다기보다는 노자와 철학적 관점이 다른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다.

19.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을 설정하여 현상을 분석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②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과 화제의 특성을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 ③ 시대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논의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두 이론이 지닌 장점을 절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0.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자는 ㉠이 ㉡들 간의 관계 원리라고 보았다.
- ② 노자는 ㉠이 ㉡에 선행하여 존재한다고 여겼다.
- ③ 장자는 ㉠을 ㉡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겼다.
- ④ 장자는 ㉠이 ㉡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 ⑤ 노자와 장자는 ㉠과 ㉡의 관계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보였다.

21.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사람들’에 대해 장자가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사람들은 길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게 되고, 어느 사이엔가 그 길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길로 인식된다.

- ① 절대적인 길로 보이는 그 길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② 기존에 만들어진 길 중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 ③ 혼자 걸어가기보다는 타인과 힘을 합하여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안전한 길을 두고 새로운 길을 만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 ⑤ 한 번 만들어낸 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상으로 귀환하는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선체(船體)는 고온이 된다. 우주선의 선체가 고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주선이 초고속으로 대기 속을 날면, 우주선 앞면의 공기가 급격히 압축된다. 공기는 급격한 압축을 받으면 온도가 상승하므로, 그 열이 선체에 전해져 선체를 고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공력 가열’이라고 한다. 실제로 소형 우주선의 경우 공력 가열에 의해 공기 자체의 온도가 1만~2만 °C 정도가 된다. 이런 고온으로 인해, 산소나 질소 같은 분자가 원자로 분해된다. 분해된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갈라져 이온화되면서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빛난다. 대기권으로 재돌입 중인 우주선은 이렇게 빛나는 플라즈마에 둘러싸여 강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선의 선체는 이러한 공력 가열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S자로 선회하며 대기권으로 재돌입하여 비교적 약한 공력 가열을 장시간 받게 되는 우주 왕복선에는 ㉔ 복사 냉각을 이용해 선체에서 열이 달아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철을 높은 온도까지 가열하면 붉게 빛나는 것처럼 물체는 고온이 되면 빛이나 적외선을 강하게 내보낸다. 이를 열복사라 하며, 이때 이 빛이나 적외선에 의해 물체의 열이 밖으로 달아난다. 즉 열복사는 물체의 온도를 내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사 냉각이다. 우주 왕복선의 표면에는 무수한 내열 타일이 붙어 있다. 이 타일은 우주 왕복선이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공력 가열을 받아 1,500 °C의 고온이 된다. 그러면 타일 자체가 빛이나 적외선을 내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내열 타일이 녹을 정도의 높은 공력 가열을 받는 경우에는 복사 냉각의 방법을 쓸 수 없다. 이 경우에는 ㉖ 어블레이션(ablation)이라 불리는 방법이 쓰인다. 어블레이션은 공력 가열에 의해 내열재가 열분해되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즉 내열재가 분해될 때 열을 흡수함으로써 선체에서 열을 달아나게 하는 것이다. 내열재에는 탄소섬유 등을 섞은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가열을 받은 강화 플라스틱의 표면은 탄화되어 단단한 층을 만든다. 이 탄화층의 안쪽에서는 플라스틱의 열분해가 진행되어 가스가 발생한다. 탄화층은 내부에 많은 구멍을 가지므로, 발생한 가스는 그 구멍을 지나 표면으로 분출된다. 이처럼 어블레이션은 내열재 자체가 분해되어 증발함으로써 열을 달아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표면으로 분출된 가스는 선체가 직접 가열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내열재는 가열을 받고 있는 동안 서서히 안쪽으로 열분해가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 열이 선체의 본체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두께로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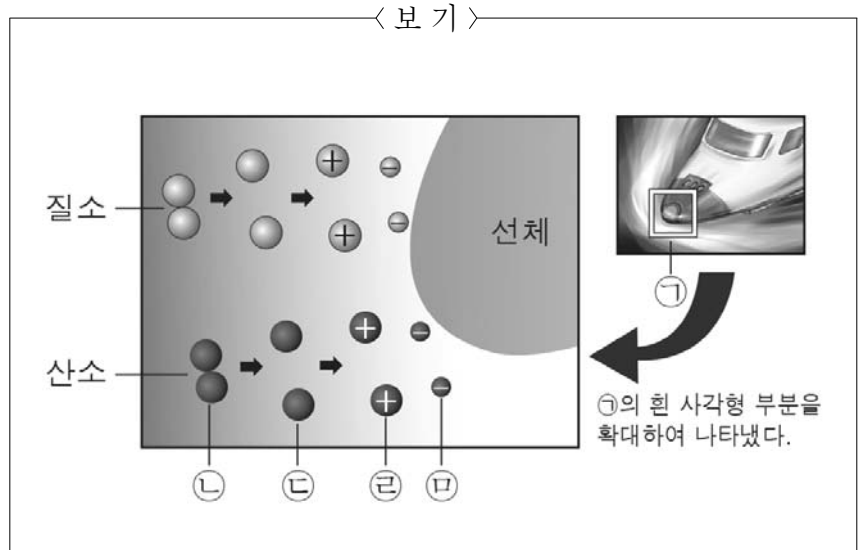
이러한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권 재돌입은 위험한 일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확실하게 지상에 되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 재돌입: 지구 대기에서 벗어났던 우주선이 다시 지구 대기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  
\* 플라즈마: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  
\* 내열재: 고온에 견디는 소재

22.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우주 왕복선의 대기권 재돌입 방법
- ② 복사 냉각에 필요한 내열 타일의 두께
- ③ 어블레이션의 과정에서 내열재의 역할
- ④ 어블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내열재의 소재
- ⑤ 대기권 재돌입 시 우주 왕복선 내열 타일의 온도

23. <보기>는 [A]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를 참고하여 ㉑~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은 고온 상태가 되겠군.
- ② ㉑이 고압이 되는 것은 ㉔ 때문이겠군.
- ③ ㉒은 고온으로 인해 ㉓으로 분해되겠군.
- ④ ㉓은 분자가 원자로 나뉜 상태이겠군.
- ⑤ ㉔은 ㉒과 ㉓으로 갈라져 이온화되겠군.

24. ㉔와 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와 ㉖는 모두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선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 ② ㉔는 ㉖에 비해 더 높은 온도의 공력 가열을 받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 ③ ㉔는 타일 자체가 빛을 내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다.
- ④ ㉖는 내열재가 분해되면서 선체에서 열을 달아나게 하는 것이다.
- ⑤ ㉖는 탄화층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선체의 가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양계(養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양계란 참으로 좋은 일 이긴 하지만 이것에도 품위 있는 것과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農書)를 잘 읽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아라. 색깔을 나누어 길러도 보고, 닭이 앉는 행을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살찌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또 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로 지어 보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다. 만약 이(利)만 보고 의(義)를 보지 못하며 가축을 기를 줄만 알지 그 취미는 모르면서, 애쓰고 억지 쓰면서 이웃의 채소 가꾸는 사람들과 아침저녁으로 다투기만 한다면 이것은 서너 집 사는 산골의 못난 사람들이 하는 양계다. 너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미 닭을 기르고 있으니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책 중에서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내어 차례로 정리하여 ‘계경(鷄經)’ 같은 책을 하나 만든다면 육우의 『다경(茶經)』, 혜풍 유득공의 『연경(煙經)』과 같은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속사(俗事)에 종사하면서도 선비의 깨끗한 취미를 갖고 지내려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중략)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 많은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은 책의 의리(義理)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

예컨대 자객전(刺客傳)을 읽을 때 기조취도(既祖就道)\*라는 구절을 만나 “조(祖)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면, 선생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사에다 꼭 조(祖)라는 글자를 쓰는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다시 묻고, 선생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집에 돌아와 자서(字書)에서 조(祖)라는 글자의 본뜻을 찾아보고 자서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책을 들추어 그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고찰해 보고 그 근본된 뜻만 아니라 지엽적인 뜻도 뽑아 두고서, 『통전(通典)』이나 『통지(通志)』, 『통고(通考)』 등의 책에서 조제(祖祭)의 예를 모아 책을 만들면 없지 않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한 가지도 모르고 지냈던 네가 이때부터는 그 내력까지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비록 홍유(鴻儒)\*라도 조제에 대해서는 너와 경쟁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 양계: 닭을 먹여 기름.

\* 기조취도: 먼 길을 떠날 때, 길의 신인 노신(路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길을 떠남.

\* 홍유: 못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름난 유학자

25. 위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서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 ② 글에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의문이 나는 사항은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 ④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활용하여 뜻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⑤ 관심 있는 정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집하며 읽어야 한다.

26.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재원’에게 충고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재원: 나는 지난 학기에 ‘○○독서회’가 선정한 ‘우리 고전 100선’을 다 읽었어.  
 소영: 우와, 대단하다. 그 어려운 책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었지?  
 재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기면서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니깐 금방 읽을 수 있던데.

- ① 실생활에 유용한 독서도 필요하지만 폭넓은 교양을 쌓는 독서가 더욱 중요하다.
- ② 책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고전만을 읽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양서들도 다양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 ④ 특정한 관점만 담긴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균형을 이룬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른 사람이 선정해 놓은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야 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복지 제도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 전달 형식에 따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중,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민 혹은 시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생필품 혹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통해 마련되며, 수급자는 수혜 받은 것에 상응하는 의무를 ㉡ 지지 않는다. 그런데 공공부조의 경우 국가가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이들에게 사회적 소외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기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시민들과 관련 기업에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사회수당은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보험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회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의 총체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선진복지국가의 노인수당(old age benefits)과 같이 국가나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대로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그가 처해 있는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급여의 지급이 현금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가진 특정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에는 국가가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가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적 기관의 서비스를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나라들은 서비스 증서를 제공하는, 일명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후자 방식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소득의 재분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노인수당은 수급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사회복지 제도의 일반적인 구분 기준은 급여 전달 형식이다.
- ③ 사회보험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④ 공공부조는 수급 대상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⑤ 바우처 제도는 수혜자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28. ㉠과 ㉡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 ② ㉠은 ㉡과 달리 권리적 성격보다 수혜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은 ㉠과 달리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④ ㉠과 ㉡은 모두 수급자가 수혜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 ⑤ ㉠과 ㉡은 모두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운영된다.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회서비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근의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대상이었던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역으로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기도 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 ① 사회복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②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은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③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어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조로 전환될 것이다.
- ④ 사회서비스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역할 이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종사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0. ㉢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낯은 초가집이 산을 지고 앉아 있었다.
- ② 그 선수는 바람을 지고 달리고 있었다.
- ③ 그는 나무 지계를 지고 터덜터덜 걸어왔다.
- ④ 아우와 나는 이불과 옷 보따리를 등에 졌다.
- ⑤ 당신은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1~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서역 파사국의 왕은 세 부인을 두었는데,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셋째 부인 보만후가 왕자를 낳자 이를 시기한 두 왕후는 왕자를 소 구유에 버린다. 암소에게 삼켜진 왕자는 죽지 않고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태어나 보만후를 돕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왕후에 의해 또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금송아지는 궁궐을 떠나기 전에 보만후의 처소에 찾아온다.

금송아지 눈물 흘리며 아뢰기를,  
 “소자 어찌 모친의 자식이 아니리이꼬, 자초지종을 말씀하올 것이니 들으시옵소서. 모친께서 해산하실 때에 두 왕후가 채란으로 하여금 소자를 잡아 내고 고양이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가져다가 산실에 넣고 아해는 산에 버렸더니, 백학(白鶴)이 와서 나래를 덮어 주매, 다시 가져다가 큰 암소 구유에 넣고 여물을 덮었더니, 천상 나한의 소가 내려와 온통으로 삼켜 구 삭만에 엮을 트고 나오매, 소 허물을 쓰고 있어 속은 사람이요 거죽은 송아지 모양이라. 허물 벗을 때까지 모친을 모시고 지내고자 하였더니 두 왕후와 채란이 눈치를 채고 소자를 없애고자 하여 거깃 병들었다 하고 송아지 간을 먹어야 낫는다 하고 어의에게 밀지를 전하매, 어의 이를 알고 소자를 구하고 개를 잡아 간을 내어 바치매, 소자가 죽은 줄 알고 있사오니, 오래 여기 있다가는 화(禍)가 또 있을지라. 소자는 이 길로 우전국으로 가오니 복망 모친은 과도히 슬퍼 마옵소서. 잠깐 고생하옵시면 좋은 때가 있으리이다.”

하고 모친을 배별하니, 보만후 이 말을 듣고 달려들어 송아지를 안고 송아지는 모친을 안고 우니, 그 정상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차설, 금송아지 모친을 배별하고 서쪽으로 향하다가, 일위 백발 노인을 만나 묻기를,

“노인은 어디를 가시나이까?”

그 노인이 이르기를,

“나는 우전국으로 가거니와, 너는 어디로 가며, 짐승이 어찌 말을 하느냐?”

금송아지 대답하기를,

“내 몸이 비록 짐승이나 사람과 다름이 없나이다. 이제 노인 가시는 곳에 데려다 주옵소서.”

노인이 심중에 생각하되,

‘이 짐승이 사람과 같이 말하니, 필경 연고 있으리라.’

이리하여 함께 길을 떠나 우전국에 다다르니라.

차설, 이 나라에도 태자 없고 공주 하나뿐이라. 공주의 옥모화용(玉貌花容)과 섬섬세요와 옥수염장(玉手艷裝)\*이 휘황찬란하여 천승국모지풍(千乘國母之風)\*이며, 일세국색(一世國色)이라. 왕이 극히 애중하여 저와 같은 부마(駙馬)를 간택하여 쌍루함을 보려 하시더라.

하루는 공주 한 꿈을 얻으니, 하늘에서 금신이 내려와 이르되, “너의 배필은 하늘이 정한 연분이 따로 있으니, 종로 네거리에 짚으로 북을 만들어 걸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짚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 네 배필이니, 부디 명심하여 천정가우(天定佳偶)\*를 잃지 말라.”

(중략)

이때 금송아지 노인을 따라 우전국에 이르니, 노상 행인들이 서로 웃으며 말하기를,

“나중에는 별일도 다 많도다. 짚북에서 무슨 소리가 나며, 부마를 뽑으려면 재상가(宰相家)에 어진 신랑감이 많거늘, 하필이면 짚북을 쳐 소리 내는 사람이라야 부마를 삼을꼬. 허무맹랑한 일도 많도다.”

이에 금송아지 듣고 속으로,

‘관음보살이 이르되 짚북을 치면 자연 좋은 일이 있다 하시니, 과연 허언이 아니로다.’

노인과 같이 종로에 이르러 보니, 사람이 겹겹으로 짚북을 에워싸고 각기 한 번씩 쳐서 보는지라.

금송아지 사람을 헤치고 들어가 두 발로 구르며 꺾충 뛰어 짚북을 치니, 소리 웅장하여 장안이 진동하는지라. 좌우 놀라 자세히 보니 오색이 영롱하고 향취가 촉비한 일개 금송아지인 지라. 모든 사람들이 백발노인을 향하여 값을 불계(不計)\*하고 팔라 하며, 또한 금송아지 말한다 하여 크게 요란하더라.

공주 누각 위에 앉았다가 북 소리를 듣고 본즉, 사람이 아니요 송아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꿈속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북을 쳐 소리를 내는 것이 즉 배우라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정하신 배필이라.’

누각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데리고 공주궁으로 가는지라.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짚북을 걸어 놓고 부마를 구한다 하시더니, 송아지 사위를 얻었구나.”

거리거리 웃음 소리에 귀가 아프더라.

국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탄식하여 이르기를, “내 말년에 무남독녀를 두었다가 저와 같은 쌍을 얻지 못하고 송아지 사위를 얻을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송아지를 죽여 인국의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다시 생각하되,

‘하여간 이상한 일이로다. 짚북에서 소리나는 것은 심상치 아니한 일이니, 둘을 다 쫓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책이라.’

- 작자 미상, 「금우태자전(金牛太子傳)」 -

- \* 옥모화용, 섬섬세요, 옥수염장: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와 몸매, 차림새
- \* 천승국모지풍: 천승국의 국모, 즉 황후의 풍모
- \* 천정가우: 하늘이 정한 배필
- \* 불계: 이롭고 해로움 따위를 가려 따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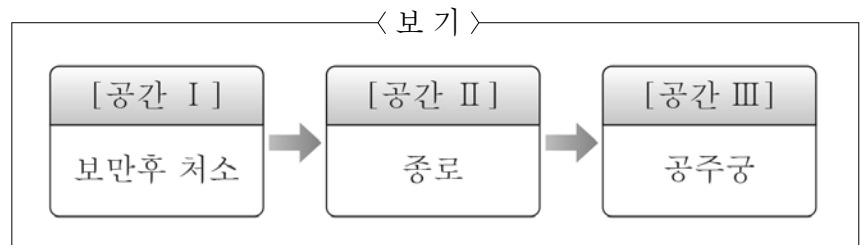
3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전기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작품에 신비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시대적 특성을 구체화하여 사건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32. 위 글에 나타난 **짚북**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송아지’와 ‘공주’의 결연을 매개한다.
- ② ‘국왕’과 ‘금송아지’ 간의 친밀감을 유발한다.
- ③ ‘노인’에게 뜻밖의 경제적 부를 가져다준다.
- ④ ‘공주’의 궁궐 내 위상을 더욱 상승하게 한다.
- ⑤ ‘사람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의 마음에 공감하도록 한다.

33. <보기>는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간 I’에서 ‘금송아지’는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만후’에게 이별을 고했군.
- ② ‘금송아지’가 ‘공간 I’에서 ‘공간 II’로 가는 도중에 만난 ‘노인’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송아지’의 부탁을 수락했군.
- ③ ‘공간 II’에서 ‘사람들’은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금송아지’의 내력을 알게 되었군.
- ④ ‘금송아지’가 ‘공간 II’에서 ‘공간 III’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공주’가 꿈의 계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군.
- ⑤ ‘공주’는 ‘국왕’에 의해 ‘공간 III’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군.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人生) 백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수>

천심절벽(千尋絕壁) 섰난 아래 일대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漁釣)\* 생애(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  
 <제2수>

보리밥 과 생채(生菜)를 양(量) 맛봐 먹은 후(後)에 모재(茅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엇시니 눈 압해 태공(太空) 부운(浮雲)\*이 오락가락 하듯다.  
 <제3수>

공산리(空山裏)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두견(杜鵑)아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수>

저 가막이 좃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야림(野林) 한연(寒烟)\*에 날은 초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편편(翩翩) 고봉(孤鳳)\*이 갈 바 업서 하났다.  
 <제5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기 비 췌단 말가 죽간(竹竿)\*을 들너 뵈고 십 리(十里) 장사(長沙) 내려가니 연화(烟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수>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염치: 싫어하지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어조: 물고기를 낚음.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집  
 \*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낙화광풍: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야림 한연: 들판 숲속의 차가운 안개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 연화: 안개가 피어오르는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5. 위 글에 사용된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 드러난 ‘망기’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제2수>의 ‘어조 생애’로 실현되고 있군.
- ② <제2수>의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제4수>의 ‘낙화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제3수>의 ‘보리밥 과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에서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 ④ <제4수>의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는 <제5수>에서 ‘가막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 ⑤ <제6수>에서 화자가 처한 공간인 ‘어촌’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제1수>의 ‘빈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겠군.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의 아버지는 부면장 덕의 충직한 머슴으로 전쟁의 와중에 부면장 덕을 지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부면장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의 목인 하에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나’는 벗 장돌식과 아버지의 둘무덤을 만들고 홀로 마을을 떠난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돌아온 ‘나’는 장돌식을 시켜 돈으로 마을사람들의 품을 사서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도록 한다.

까치산 봉우리에 큰 잔치가 벌어진 듯 벽신거렸다. 술과 돼지고기도 푸짐하게 마련하여 아무나 싫도록 먹게 하였다. 돼지고기를 안주로 옥심껏 퍼마신 술에 거나해진 마을사람들은, 월곡리가 생긴 이래 가장 포실한 잔치를 벌였다면서, 내 앞에 와서 넙죽넙죽 허리를 굽히며 고마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비닐봉지 속의 아버지 ㉠ 유골 부스러기를 향해 마음속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 아버지, 이제 한이 풀리십니까. 옛날 아버님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주인의 아들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아버님 무덤에 덮을 ㉡ 땃장을 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 없는 아버님을 죽인 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저의 한이 풀렸으니 아버님의 한도 풀리셨겠지요.

유골 부스러기를 광 속에 놓고 흙을 덮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유골이 땅속 깊숙이 묻히고, 덩실하게 봉분을 짓기 시작하자 나는 차츰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쾌감을 맛보았다.

“이만하면 월곡리 안에서는 젤로 ㉢ 큰 묘등이 되겠구만.”

“석물만 얹힌다면 세종대왕 능보다 더 덩실해!”

마을사람들은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 큰 소리로 한마디씩 하였다.

이장 일을 모두 끝내고 마을사람들이 빙 둘러앉아서 남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한 잔씩 돌려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계획대로 내 신분을 밝혔다. 나는 그들이 내 신분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까무러칠까 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은 제 고향이 바로 월곡입니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갔었죠. 제 가친은 오랫동안 머슴을 살았던 황바우 씨니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묘를 써주신 분.”

나는 되도록 목줄에 힘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사람

들 표정에 별로 크게 놀라는 빛이 없었다. 특히 나는 부면장네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첨부터 황바우 아들이라고 밝힐 것이제 원!”

“아들이 잘된 걸 보니 ㉠ 돌무덤 자리가 명당이었던갑구만.”

“황바우 일이라면 우리가 이르게 많은 돈을 받기가 미안헌디.”

“참말로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는 일이구만.”

“그나저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지게 잘했네그려.”

하고들 몇몇 사람들이 언뜻언뜻 한마디씩 뱉어냈을 뿐이었다.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까지도 깡그리 털어 마시고,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까치산에서 내려가 버렸다.

나는 순간 까치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마을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중략)

양귀비꽃 같은 놀이 깔리기 시작하는 까치산 꼭대기에는 나와 장돌식과 음식 그릇을 치우는 장돌식의 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장돌식이한테 인부를 불러 아버지의 돌무덤에서 한쪽 다박술 옆에 숨겨놓다시피 한 못생긴 큰 ㉡ 돌을 버스길까지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월곡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돌은 왜 신작로까지 운반하라고 그러는가?”

장돌식은 산을 내려가던 인부 한 사람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다박술 옆의, 30년 전 우리들이 끙끙거리며 옮겼던 큰 돌을 운반해 달라고 시키고 나서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미쳤는가? 하필이면 그 큰 돌을.....”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의 혼이 들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와 나 두 사람의 우정과, 월곡리 마을사람들의 마음도..... 그 돌이라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장돌식을 보며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쩐가? 이제야 한이 풀리는가?”

장돌식도 나를 보고 씩씩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말일세.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는 고향에 올 수가 없겠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는 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았어.”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때어서 아버지의 유골 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졌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산을 내려왔다. 장돌식이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탈탈 뿌리쳤다. 내가 저지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버스 안에서 자을자을 졸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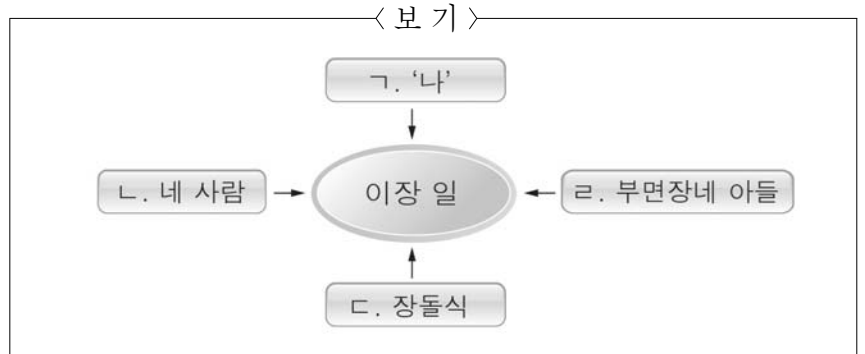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고 고향을 쳤다. 고향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났다. 빵빵 자동차 클랙스 소리가 귀청을 뜯었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이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 문순태, 「말하는 돌」 -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과거의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동일한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상황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 ⑤ 작품 속 서술자의 심경 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는 ‘이장 일’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결국 ㄴ, ㄹ을 이장 일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군.
- ② ㄴ, ㄹ은 이장 일이 끝나기 전까지 ㄱ의 신분을 알지 못했군.
- ③ ㄷ과 달리 ㄴ, ㄹ은 앞장서서 이장 일을 주도하고 있군.
- ④ ㄷ이 이장 일에 참여하는 동기는 ㄴ, ㄹ과 다르다고 할 수 있군.
- ⑤ ㄷ은 ㄱ이 이장 일을 통해 이루려 했던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군.

38.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순태의 소설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의 맺힘과 풀림의 과정이다. 우리의 역사는 전쟁이나 사회적 위기의 상황에서 수많은 아픔을 지니고 있고, 이 속에서 애꿎은 민중이 서로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준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의 소설은 이러한 비극적 역사에서 기인하는 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풀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인물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모색한다.

- ① ‘나’가 지닌 한이 이 작품에서 탈향과 귀향의 동기가 되고 있군.
- ② ‘황바우’의 비극적 운명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군.
- ③ ‘나’는 한을 맺히게 한 당사자로서 ‘마을사람들’에게 화해의 몸짓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와 ‘마을사람들’의 재회에는 ‘나’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군.
- ⑤ ‘마을사람들’은 과거 전쟁의 와중에 서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었던 아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하겠군.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가 가진 한의 근원이 되는 대상이다.
- ② ㉡은 ‘나’에게 한풀이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 ③ ㉡은 ‘나’의 부친의 삶에 대한 보상 심리를 반영한다.
- ④ ㉡은 ‘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매개체이다.
- ⑤ ㉡은 ‘나’가 오래도록 잊지 않을 만한 가치를 담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뼘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 래도 좋아라.

사슴을 뺨아, 사슴을 뺨아,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뺨아,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뺨아 취범을 뺨아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뵈고 고운 날**을 누리 보리라.

- 박두진, 「해」 -

(나)

고추밭을 걷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 **은밀한 의식**을 훑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같이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  
㉣ **불꽃**도 흙 속에 잦아든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 **둥근 사리들!**

- 나희덕, 「어떤 출토(出土)」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시에 등장하는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로 향하게 하는 긍정적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대상과 대비되는 밝음을 상징하는 해로 인하여 세상은 온갖 사물들이 신생(新生)의 빛을 받아 더욱 활기가 넘치는 세계가 된다. 결국 작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활기찬 세상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 ① 1연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인 ‘어둠’과 대비함으로써 광명한 존재인 ‘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군.
- ② 2연에서는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이라는 공간을 제시하여 이 둘을 매개하는 ‘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군.
- ③ 3연에서는 날개 치며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의 의태어인 ‘훨훨’을 활용하여, 햇빛을 받은 ‘청산’의 활기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
- ④ 4, 5연에서는 ‘사슴과 놀고’와 ‘취범과 놀고’라는 행위를 제시하여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⑤ 6연에서 ‘꽃도 새도 짐승도’ 함께 ‘애뵈고 고운 날’을 누리자는 것에서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를 엿볼 수 있군.

4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호박’의 가치를 물질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② ㉡은 ‘호박’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③ ㉢을 덮어주는 행위는 화자가 ‘호박’을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 ④ ㉣이 상징하는 ‘호박’의 강렬한 생명력은, 화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한다.
- ⑤ ㉤에는 ‘호박’의 희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이 나타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임진왜란의 막바지에 선조는 선전관을 보내어 이순신의 동태를 살피게 한다. 이순신이 왕명에 따르지 않고 출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선전관이 알고 이를 조정에 보고하려 하자 이순신의 부하들은 선전관을 구금한다.

#39. 선전관 처소(밤)

과도소리가 들린다. 이순신과 선전관이 마주 앉았다.

이순신 부하들에게 배를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그들이 육지로 퇴실 것입니다.

선전관 (의외다)

이순신 (보며) 그간 불편케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선전관 으음.....

이순신 가파른 전장에서 늘 열 배에 가까운 적을 맞아 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는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대감. 진중이 흔들려 장졸들이 사분오열되면..... 사기는 바닥을 치고..... 허면 적을 맞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전관 통제사.....

이순신 장수된 자의 소임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물리치고, 전란을 온전히 거두는 데 있습니다. 전하께옵서 소장에게 진정 바라는 것도 그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선전관 여보시오, 통제사. 허나.....

이순신 마지막으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선전관 (보면)

이순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결진 마음 하나로 칠 년을 하루 같이 전장을 지켜온 순수한 자들입니다. 전하께옵서 그들의 충정만은 의심치 않으실 수 있도록 대감께서 도와 주십시오. (이순신 일어서고)

선전관 통제사! (따라 일어서는데)

이순신, 목례하고는 돌아서 나간다. 선전관, 움직이지 못하고 이순신이 나간 곳을 굳은 채 바라본다.

#40. 바닷가 일각(밤)

이순신 묵묵히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내일이면 또다시 적의 피로 물들 바다..... 군왕의 명마져 거역하고 나아가는 전장..... 잘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 전란을 거둘 수만 있다면..... 최고지휘관의 고뇌는 길다.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이영남(E) 선전관을 풀어준다 하셨대요?

조용히 그 옆에 와서 서는 이영남. 이순신 천천히 끄덕인다.

이영남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장군..... 허면..... 적군과 싸워 이기고 돌아와도 장군을 기다리는 것은 금부도사의 오라일 것입니다.

이순신 (묵묵히 바다를 보다가)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이첨사.

이영남 세상은 장군이 믿고 계신 것처럼 맑고 명징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돌을 던지고 싶으냐?

이영남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순신 탁류에 돌을 던지면 물은 더욱 탁해질 뿐이다.

이영남 장군.

이순신 세상을 분기와 혈기로 바꾸려 들지 마라. 군인이 그같이 선부른 마음을 품으면 부하들의 창이 동족의 심장을 겨누게 된다.

이영남 하오나.....

이순신 묵묵히 이영남을 향해 돌아선다. 이영남 굳어지는데.....

이순신 명심해라, 이첨사. 군인의 소임은 오직 조국을 위협하는 적의 창을 온전히 멈추게 하는 데 있다.

이영남 (입술을 깨문다.)

#41. 행궁 일각(밤)

뒷모습이 보이는 선조, 돌아서면 그 앞에 류성룡이 서 있다.

선 조 한 장수가 있었소. 그는 전란이 일어나자 혼신의 힘을 다해 적을 물리쳤소. 그가 아니었으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을 것이오.

류성룡 .....

선 조 한 임금이 있었소. 전란을 당하자 그 임금은 허겁지겁 몽진을 떠났소. 백성을 버린 채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소이다.

류성룡 전하.....

선 조 전란이 끝났소. 장수에게는 백성의 신망과 그를 따르는 강한 군사가 있으나 임금에게는 문약한 신하와 오합지졸뿐.....

류성룡 망극하옵니다. 전하.

선 조 (돌아보며) 그대라면 어찌하겠는가? 그대가 이 나라 조선의 종묘사직을 지켜야 할 군왕이라면 어찌 하겠나이 말이외다.

류성룡 전하, 통제사 이순신은 전하의 충직한 신하이옵니다. 그의 충심을 추호도 의심치 마시옵소서.

선 조 충신이라.....

류성룡 (불안한 듯 보며)

선 조 (끄덕인다, 노회한) 나 역시 이순신 그가 과인의 충직한 신하라..... 믿고 싶소.

류성룡 (아슬아슬한 표정으로 보는데)

선 조 (싸늘한) 그가 진정 과인의 충신이라면 왜적을 섬멸하여 이 나라 조선의 안위도 지키고, 왕실의 위엄을 세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지요.

류성룡 (굳어진다.)

#42. 유도 통제사 집무실(밤)

면사첩을 꺼내보는 이순신. 천천히 넘기는 이순신, 그 위로

선 조(E): .....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이순신 면사첩을 넘기면 ‘免死(면사)’ 두 글자. 그 위로 창검을 앞세우고 바람처럼 달려오는 의금부 군사들. 수레에 간혀 칼을 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진다. 두 눈 질끈 감았다가 다시 ‘免死’ 두 글자가 커다랗게 흔들리며 보이다가 점차 ‘免’자는 사라지고 ‘死’자가 점점 크게 다가온다. 死, 死, 死..... 마치 운명이 다가오듯..... 이순신, 눈을 감는다. 그러다 이내 번쩍 뜨는

이순신 (차분) 면...사... 죽음만은 면해준다 하셨습니까?

이순신, 면사첩을 집어 화로에 툭 던진다. 곧 타오르는 면사첩, 이순신 면사첩이 타며 화르르 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본다.

- 윤선주 각본, 「불멸의 이순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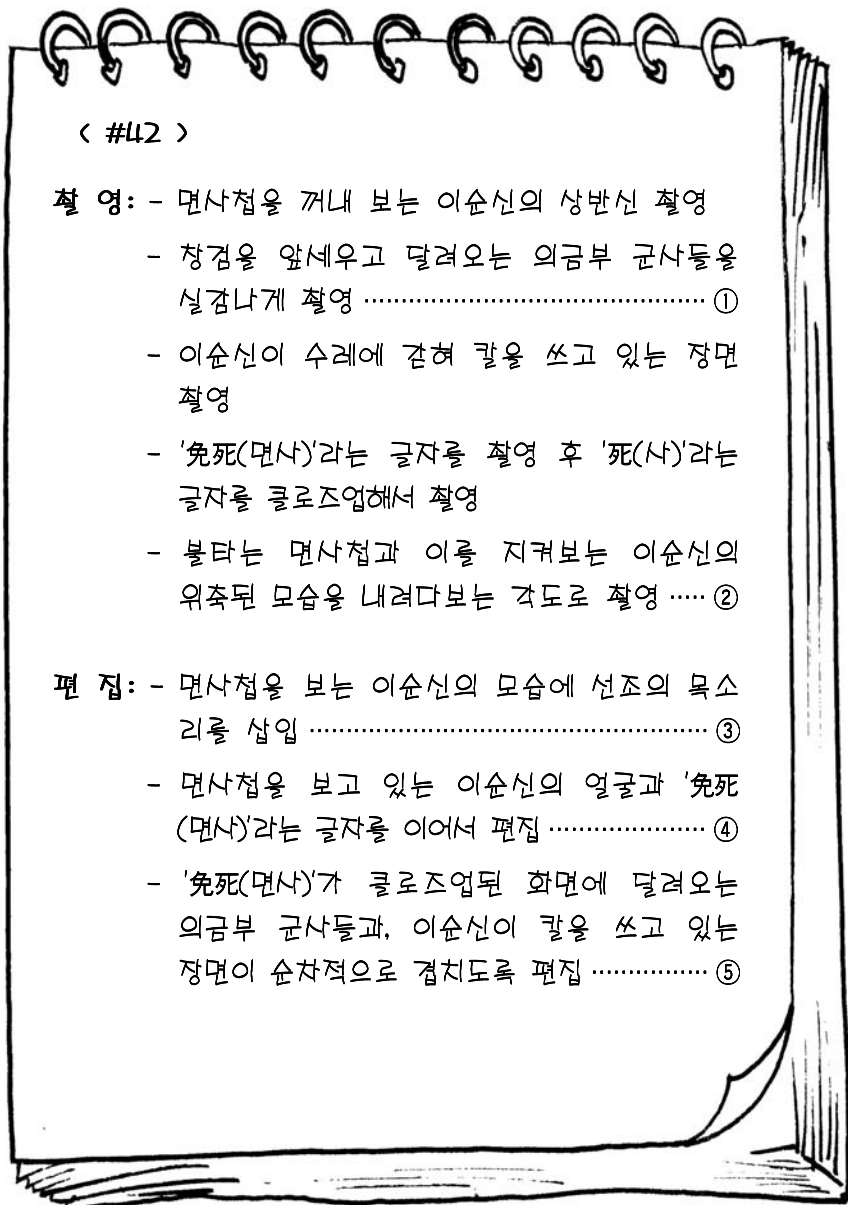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과음을 삽입하여 작품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소품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역전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4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순신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장수로서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다.
- ② 이영남은 자신들의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 ③ 선전관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이순신과 이영남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④ 선조는 전쟁 이후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순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 ⑤ 류성룡은 이순신의 편에서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나 임금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한다.

45. 다음은 시나리오에 충실하게 #42를 연출하기 위한 메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